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2013 가을호 통권 제82호 www.ksm.or.kr

특집 긴급 수해지원과 남포산원 의약품 전달



표지사진 “평화”

제1기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YPI) – 조선족 친구들과 백두산 정상에서



03



04



12



14



16

목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 화보** 03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 제1기〉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특집 04 긴급 수해지원과 남포신원 의약품 전달
특별기고 06 북한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
사업보고 09 민간단체 대북지원 정상화와 대북 수해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
10 '평화'를 찾아 떠난 20일의 여정
12 두 번째 네모상자 도서실을 열었습니다
14 조선족학교 지원, 우리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15 "한반도 평화구축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주제로 제56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개최
16 2013년 불고그라드 한·러 청년학생 교류활동
사업일지 18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자명단 19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3년 기울호 통권 제82호 | 발행인 |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 편집인 | 강영식 | 발행일 | 2013년 9월 21일

| 주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 전화 | 02)734-7070 | 팩스 | 02)734-8770

ksmseoul@ksm.or.kr www.ksm.or.kr | 디자인 및 인쇄 | 인디디자인

【고문】 강문규,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김문찬, 김병준, 김세영, 김영수, 김필건, 박남수, 박원철, 박준영, 손진우, 원혜영, 윤장현, 이수구, 이수덕, 이용선, 전정희, 정여, 정의화, 천정배, 최대석 【감사】 김영환,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총보편집위원장】 김효정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 제1기〉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2013년 7월 26일,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 제1기 –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The 1st Korean Youth Peace Initiative, 이하, KYPI 1기)가 문을 열었다. KYPI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올 해 처음 시작한 청소년 평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6번의 평화 연강, 중국 평화 투어로 구성되어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여일 간 진





긴급 수해지원과 남포산원 의약품 전달

황재성 지원사업팀 부장

평안남도 안주시(옛 안주군) 실향민, 수해피해 입은 북한 고향 주민들을 위한 성금 전달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반도 곳곳이 크고 작은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어서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는 큰 수해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따르면, 이번에 수해피해가 심각한 곳은 평안남도 안주시로 지난 7월 15일과 21일 내린 비로 안주시 전체 면적의 80%가 물에 잠겼고,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안타까운 수해피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지 며칠이 지난 7월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신 80대 후반, 90대 초반의 실향민 일곱 분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방문했습니다. 이분들은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옛 안주군)를 고향으로 둔 이북5도청 산하 평안남도 안주군 군민회(명예군수 최용호) 회원들로 언론을 통해 고향인 안주 지역의 수해피해 소식을 접하고 이를 돋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셨답니다. 어르신들은 1차로 모금한 수해지원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면서, 수해지원 물자를 안주지역에 잘 전달해 달하는 부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9월 말 이번에 기탁된 500만원의 성금과 함께 자체 모금을 더해 총 3천만 원 상당의 국수를 안주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수해지원 물자는 어린시절 고향을 떠나 이제

는 고령이 되신 실향민 분들이 여전히 고향 땅과 그 곳의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또한 실향민 분들의 정성을 전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남포산원에 대한 물자 지원 재개와 대표단 방북 추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된 기존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재추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비로소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개 할 수 있었습니다. 1차로 4천만원 상당의 분만에 필요한 의약품과 소모품을 지난 9월 16일 중국 단동을 통해 북한 남포산원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물자지원과 함께 참으로 오랜만에 대표단 방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 대표단은 10월 중 남포산원을 방문하여 지원물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북측과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포산원은 평안남도 남포시 중심부에 있는 병원으로, 지난 1998년 남포직할시 종양 산과병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북한 보건의료체계상 3차(도병원급)에 해당하며, 남포시와 인근 군지역(대안, 용강, 강서, 온천, 천리마군 등)의 산과(산부인과) 중심병원(도병원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포시의 산모뿐만 아니라 인근 군지역의 산모들이 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포산원에는 의사 30명, 간호사 25명, 조산사 6명, 약제사 5명 등 총 71명이 일하고 있으며, 산과, 부인과, 여성건강관리과(초음파실, 실험실, 소수술실, 치료실, 조제실, 해산실, 진료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120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남포산원은 하루 평균 약 120명의 외래환자(임산부 등)가 찾고 있으며, 평균 80명 정도의 환자가 상시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0명, 한 달에는 200~300명의 분만 환자가 있으며, 이중 제왕절개 건수는 7~8건, 자궁근종 수술은 월 평균 30건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산모가 자연분만일 때는 병원에 1주일, 제왕절개를 했을 때는 2주일간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남포산원의 병동은 애초 음식점으로 건설된 건물이라 병원의 기능을 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병원에 필요한 필수 기본 설비(위생 설비, 난방시설, 상하수도 배관, 의료가스 설비 등)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가동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병실의 경우 구형 침대만 설치되어 있고 각종 진찰실에 구비된 의료기기와 비품 등은 매우 노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외래병동을 신축하고, 이 병동 안에 수술실을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3층 짜리로 지어질 외래병동에는 1층에 접수처와 외래약국, 대기실, 구급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심전도실, 초음파실, 방사선촬영실, 보일러실, 전기실을, 2층에는 산과 진단실과 상담실, 치료예방과, 부인과 진단실과 상담실, 검사실, 처치실, 사무실, 간호사실, 소독실 등을, 그리고 3층에는 수술실, 수술준비 분만실, 진통실, 회복실, 의사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도 남북관계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지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남포산원

북한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최근 한반도의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미래는 더 이상 추상적 영역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단순한 연구대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가 북한이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선택과 변화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남북한관계의 성격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국의 정치경제 및 사회지형과 동북아지역체제의 모습도 심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반도의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미래는 더 이상 추상적 영역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단순한 연구대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상정해 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이 구상하는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하며 소통하는가에 따라 북한은 희망의 대상일 수도 있고 역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미래는 점차 예측보다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미래를 다루기 위한 최상위의 궁극적 과제는 역시 통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반세기를 넘는 세월 동안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통일논의는 점점 수사화 내지 신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논리에 밀려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의 역할 공간 역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고착된 것은 남북한이 힘을 모아 주도하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 남북한 모두 적대적 상호의존의 통일정치 게임을 일상화시켰기 때문이다. 적어도 통일문제가 논의와 운동 수준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고정관념과 관성을 과감하게 털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과 연관된 복잡한 고리들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때로는 사고의 단절적 도약, 혹은 발상의 전환도 각오해야 한다.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두 개 이상의 정치공동체가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선택하던 간에 일종의 도약이 필요했고 이 도약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한 새로운 비전, 정치적 의지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기여가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국토와 정치, 경제, 군사적 분리 및 대립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심리 등 여러 차원의 문제들을 야기 시켰다. 냉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적과 우군을 가르는 냉전적 이분법과 사상의 획일주의, 군사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편협한 민족주의 경쟁의 산실로 남아 있다. 또한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사유 방식, 적대와 위기의식 등으로 특징화되는 분단주체들이 형성되고 의사소통의 경직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것은 창조적 사고, 토론과 협상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유와 권리에 기초한 사회 형성 역량의 제약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분단은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일상적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남북한의 전환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통일담론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때의 담론은 당연히 통일코리아의 미래비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이제 새 통일 담론의 열개와 그것을 구체화할 몇 가지 선차적 의제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제들을 쟁점화 함으로써 그것을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통일담론의 열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가정을 토대로 다듬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체제와 이념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과 강대국이 연계된 민족의 문제이다. 적어도 분단된 한반도에서만은 민족의 문제제기가 강대국적 발상의 넓은 자민족중심주의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주변 세력 중 어느 일방에 경도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했을 때 가능했었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한반도의 분단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대륙 강

대국과 해양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공동이익의 영역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고 남북한 역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보다는 이들 세력의 어느 한 편에 안주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최후의 열쇠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쥐고 있다. 강대국들의 한반도 분단과 휴전협정 체결과정, 그 후의 정책들을 역사적으로 되돌아 볼 때,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정책의 종속변수가 되면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어렵다.

셋째,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견주어 볼 때, 민족적 유대를 전제하지 않는 비대칭적 국제연대 내지 협력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남북한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대외적으로 고립된 일방이 고립되지 않은 일방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

넷째, 통일은 우리 민족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러나 분단 이전의 민족으로 회귀하려는 복고적 태도나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주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과 복합적 동북아 신질서를 유의하면서 통일은 다중적 주체가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민족'은 이러한 현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재 개념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은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의 다양성을 창조적으로 조직하고, 국제적 협력 체제를 긴밀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분단이전의 단일국가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이 시점에서 평화적 방식의 가능한 최소 통일 형태로서 남북한과 해외 동포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상징적 통일 수준의 코

리아 공동체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공동체는 남북한이 공동이익 가능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무리하게 단일국가체제 방식의 통일을 추구한다면 다시 한 번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내적 식민지화 현상 등 국가통합의 위기 때문에 민족통합에 실패할 공산이 크다. 이 시점에서는 코리아 공동체나 공동시장을 통한 국가연합 구성 방식이야말로 온전한 단일국가체제의 통일을 지향하는 가장 빠르고 옳은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한, 북한은 통일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소통과 관계맺음을 통해서 통일 코리아가 추구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대상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느 일방의 변화를 강제하는 정치 경제적 통합보다는 우선 상호 변화를 통한 사회문화적 융합을 일구어내는 것이다.

사실 무력통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일은 단순한 민족의 재결합이거나 어느 일방의 이념과 제도를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통일은 차이와 평등, 다른과 통합을 공명시키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기능주의 통합론에 근거한 기존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진정한 신뢰와 교류 협력은 단순하게 기능적 연계망의 확대만으로는 어렵다. 기능적 필요에 의한 통합은 원래체제와 이념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국가 간에 추진되어 온 통합의 방식이다. 남북한은 한 민족이지만 이념과 제도 사회문화적 특성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기능통합에 앞서 마음체계나 이념 및 제도의 상용도를 높이는 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시각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통일의 얼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시각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시각은 각 영역별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시키는 중요한 기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번 형성된 시각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증 불가능한 그릇된 시각과 가정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북한이 점점 반증 불가능한 존재에서 반증 가능한 존재로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면서 기존의 북한을 보는 시각들을 평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기초로 북한이 대내외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내구력의 기본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을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은 인민의 자발적 순응 및 동원기제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라 최소화된 핵심 지배 블록의 응집력을 토대로 버티고 있는 체제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위기대응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비롯한 북한 사회 내부의 일련의 미시적 수준의 변화 징후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현상이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정교하게 분석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대북정책의 현실 적합성의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상 분단 이후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의 대상인 북한을 타자화 시키는 것이었다. 무력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정책의 다른 한 당사자를 배제한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이율배반인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 수단과 유화적 수단 중 어느 방식이 더 현실성을 갖는 수단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며 상대방을 대등한 참가자로 인정하는 정책이야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실성 있는 대북 정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남북이 함께 살 수 있는 하나의 코리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분단의 미래는 당연히 통일이어야 한다. 우리는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전도된 현실에서 철저하게 탈피해야 한다. 민족의 문제(남북관계, 통일)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주, 민주, 평화,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 남북한관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자주, 민주, 평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일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우리는 민족의 논리와 자본(시장)의 논리를 겸비함으로 종합하면서 단계적 연속적 통합과정의 전형적 경로인 경제교류→공동시장(경제공동체)→다원적 안보공동체→국가연합→연방 또는 단일국민국가체제 수립의 길이 가장 현실적인 통일의 길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대내외적 환경을 무시하고 수사적 차원에서 단일국민국가체제 수립만이 진정한 통일임을 고집하면 역설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당분간 통일 목표의 최대치를 국가연합 정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단계적 연속적 통합의 과정을 밟아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 진다면 비로소 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꿈에서 실현 가능한 꿈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긴 호흡에서 보면 통일목표의 최소화라는 발상의 전환이야 말로 가장 빠르고 올바른 완전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 위 기고는 본 단체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 대북지원 정상화와 대북 수해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

통일부는 북한 취약계층과 수해주민들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 보다 폭넓고 지속적인 승인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부 대북정책의 액서사리가 아닙니다’

1. 지난 7월 29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계획 승인 이후 한 달 여만에 12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통일부가 추가 승인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환영하며, 지난 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북민협>의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준 통일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2. 그러나 <북민협>이 통일부에 요청한 내용 중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기초 식량지원과 대북 수해지원이 이번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실망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3. <북민협>이 지난 6월 20일에 신청하였지만 여전히 보류되고 있는 북한 횡해도와 평안도 어린이 6만 여명에 대한 지원사업(지원물자 - 밀가루 1,000톤, 옥수수 1,200톤, 분유 16톤)에 대한 승인신청을 계속 보류하는 이유가 ‘전용이 우려되는 식량은 아직 지원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소극적이고 우려스러운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 영양개선의 핵심 품목이며 정부가 제시한 분배투명성 확보 기준을 충족한 기초 식량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품목만으로 지원품목을 한정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한 인도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 인도지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4.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북한의 어린이들과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동포애가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3년 9월 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57개 대북지원 민간단체 간의 협의체로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2년부터 회장단체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 제1기 –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평화’를 찾아 떠난 20일의 여정

이예정 기획홍보팀 부장

‘평화란 무엇인가?’ . ‘폭력을 통한 개인 간 갈등 해결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국가 간 무력 사용은 용인될 수 있는가?’ , ‘한반도 평화의 길은 무엇인가?’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 제1기〉 스물다섯 명의 고등학생들은 이런 질문에 온 몸으로 – 문자 그대로 ‘온 몸으로’ – 답을 찾으며 치열한 여름을 보냈다.

2013년 7월 26일,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 제1기 –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The 1st Korean Youth Peace Initiative, 이하, KYPI 1기)가 첫 번째 평화 강좌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KYPI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이 올 해 처음 시작한 청소년 평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6번의 평화 연강, 중국 평화 투어로 구성되어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여일 간 진행됐습니다.

평화 강좌는 여섯 번 중 세 번은 서울에서, 나머지 세 번은 중국 평화 투어 기간 중 중국에서 진행됐습니다. 김동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연구위원(평화문화연구원 원장)이 진행한 1~5강은 평화학(Peace Studies)의 기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조별로 고민의 결과를 나누는 참여형 방식으로, 일방적인 강의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5강, ‘평화박물관 만들기’에서는 ‘구조적 폭력’, ‘직접적 폭력’ 등 이전 강좌에서 배웠던 개념을 조원들이 직접 조각 작품이 되어 구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박경서 초대 UN인권대사가 강의한 6강, ‘인권과 평화 – 내가 만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평화의 길을 걸어온 이들의

삶을 조명하며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중국 평화 투어’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백두산지구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화 투어는 북중접경지역 답사(삼합부터 도문까지),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조선족 지원사업 현장 방문, 연변지역 우리민족 유적지 답사, 백두산 등반 등으로 짜여졌습니다. 특히, 둘째 날부터는 현지 조선족 고등학생 여덟 명이 합류, 전 일정을 함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연변 학생들은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이해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이어지는 빠빠한 스케줄, 인생 최악의 악천후를 경험한 백두산 등반, 이파금씩 말썽을 부리는 냉방 시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뒤떨어지는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도 이러한 모습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 안의 평화, 개인 간의 평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역의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해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예전의 논의와 방식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KYPI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탐구, 이에 기반한 실천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방식들이 논의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권효정(동대부여고, 2학년)

평소 주변과의 갈등을 나 자신 위주로 해결하려 했다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준(우신고, 1학년)

생소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셔서 즐겁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갈등지도 그리기를 통해 효과적 해결 방법을 아는 등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수희(이화여고, 2학년)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더불어 피스미디어 등 직접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다루어서 이해가 편했으며,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문세정(하나고, 3학년)

평화에 대해서 막연한 이상의 관점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평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폭력과 갈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진명(고척고, 1학년)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내용을 배운 것 같아 좋았습니다. 특히 박경서 박사님의 강의는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고, 김동진 박사님의 강의 또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 제1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장소	주제
〈1강/OT〉 7/26(금)	서울 (레이첼카슨홀)	OT 및 자기소개
〈2강〉 8/2(금)	서울 (레이첼카슨홀)	평화란 무엇인가? – 글로벌 시대의 평화
〈평화투어1〉 8/6(화)	중국 (연길, 룽정)	룽정시 투어 – 대성중, 북안소학교, 윤동주생가 등
〈3강〉 8/6(화)	중국 (장흥호텔)	다양한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Conflict Mapping)
〈4강〉 8/7(수)	중국 (장흥호텔)	피스 미디어란?(Peace Media)
〈평화투어2〉 8/7(수)	중국 (룽정, 삼합, 도문)	두만강 따라 – 국수공장방문, 북중국경지대(삼합~도문)
〈5강〉 8/7(수)	중국 (장흥호텔)	평화박물관 만들기
〈평화투어3〉 8/8(목)	중국 (백두산 지구)	가자, 백두산으로!
〈평화투어4〉 8/9(금)	중국 (연길)	조선족 친구와 함께 연길 시내를~
〈6강〉 8/17(토)	서울 (레이첼카슨홀)	인권과 평화 – 내가 만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성은제(상암고, 2학년)

평화강연도 중국에서의 일정도 저에게 정말 크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고, 다른 친구들이 쉽게 느끼고 경험하지 못할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이번 방학을 정말 일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김민석(강서고, 1학년)

평소에 들어왔던 방식의 이론공부가 아닌 심장에 남는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장원준(성남고, 2학년)

연변지역에서 또래 조선족 친구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적은 다르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 가졌던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편견도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룡(상계고, 1학년)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은 활동이었습니다. 1기라서 걱정하고 간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데는 명확하다 싶을 정도로 매우 즐거웠고 중국 평화투어 역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선아(덕원여고, 3학년)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족에 대한 두려움과 선입견을 많이 떨칠 수 있었고, 북한 사람들이 시는 땅을 바라보면서 이전에는 하지 못한 많은 생각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네모상자' 도서실을 열었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룽정시 북안소학교 도서실 개관

홍상영 사무국장

<현 교과서 날개를 달다!> 캠페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이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지난 5월 22일 연변자치주 룽정시 북안소학교에 네모상자 도서관이 두 번째 문을 연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화룡시 신동소학교에 이어 2호 '네모상자' 도서관이 탄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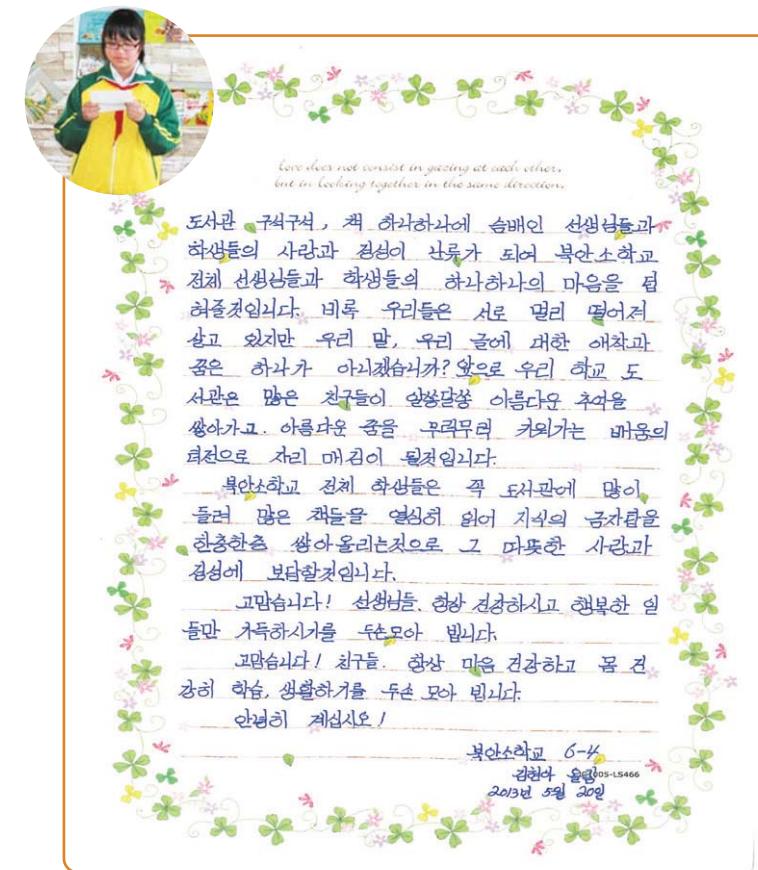
개관식에는 북안소학교 학생들, 박경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 룽정시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최완규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25명이 방문하여 개관을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네모상자'(네가 꿈꾸는 모든 것을 상상하라 자유롭게) 도서관 현판식에 이어 6학년 김현아 학생이 <현 교과서 날개를 달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국의 학생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였습니다. 새 도서관을 맞이한 우리 반 친구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꼭 전해 달라고 덧붙이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북안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은 원래 소년단 회의실로 쓰던 것을 리모델링하였는데 넓이가 120평방미터에 15,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는 규모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내부는 학생들

의 이름짓기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알쏭달쏭방, 지식쉼터, 상상의 나래방, 생각의 옹달샘, 꿈이 자라는 방 등 5개의 학습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닥에는 보일러를 설치하여 겨울철 앉아서도 누워서도 따뜻하게 책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룽정시 북안소학교는 학생 650명, 교사 100명, 25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조선족학교입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대표적인 도시로써 많은 조선족들이 모여 살았지만 90년대 이후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 수가 줄면서 특히 조선족 민족학교들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룽정 시내의 조선족소학교는 크게 감소하여 현재 북안소학교를 포함한 2개 학교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안소학교는 소학교 아이들에게 민족전통을 꾸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모임인 '일송정예술단'이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오면서 전통춤, 노래, 풍물 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안소학교 아이들이 '네모상자' 도서실에서 마음껏 한글도서를 읽으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내용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한국 학생들에게 전하는 김현아 학생의 감사편지(북안소학교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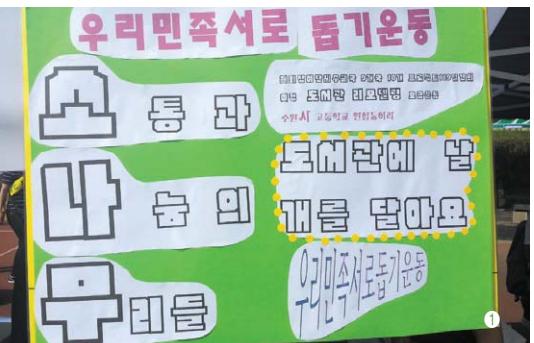


❶ 네모상자 도서실 현판식 ❷ 조선족학교 단체 사진

조선족학교 지원, 우리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한민족 어린이를 돋기 위한 학생 동아리 활동 시작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동아리를 결성하여 해외 한민족 어린이돕기에 나섰습니다. 수원고와 매탄고, 매원고, 나루고, 화홍고 학생 11명으로 구성된 “소나무”와 용인외고와 영덕중학교 학생 40명으로 구성된 “위아더월드”가 바로 이들입니다. 학생 동아리는 1차로 중국 조선족학교 작은 도서실 지원활동에 나섰습니다.



① 동아리 '소나무' 모금홍보 피켓 ② 도서분류작업인 봉사동아리 학생들 ③ 한글도서를 모아준 안산슬기초 선생님과 학생들

중국 흑룡강성 동녕현에 러시아 연해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작은 조선족집거촌이 있습니다. 삼치구촌이라고 부릅니다. 삼치구촌에는 150여명이 다니는 작은 조선족소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도서실을 새롭게 꾸며주려고 합니다. 책장을 바꾸고 벽과 바닥을 새로 칠한 뒤 새 책상과 의자를 들여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장소로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한글도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조선족학교를 알리는 홍보활동과 도서실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그리고 한글도서 모으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도서 날개를 달다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안산시, 6대의 수거차량이 초·중·고등학교를 돌며 학생들이 모은 한글도서 수거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글도서 모으기는 학생들이 집에 있는 책 1~2권 씩을 모아서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한글도서 모으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과 안산시교육청의 협조로 안산시내 초·중·고등학교 90개 학교가 참여하였고, 그 결과 약 3만권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모인 한글도서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분류작업을 거친 후에 조선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한글을 익히고 배우는 소중한 교육자료로 전달됩니다. 한글도서 모으기에 참여해 주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책 모으기에 앞장서 주신 도서관 담당 학교선생님들과 사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주제로 제56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개최

-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과 사례

손종도 평화나눔센터 /정책팀 부장



지난 7월 27일은 1950년 6월 시작된 한국전쟁이 53년 휴전이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마무리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돌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며칠 앞둔 7월 23일 『한반도 평화구축과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는 주제로 제56차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영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김동진 평화문화연구원 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프랑스 카미 티농(Camille Tignon)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한반도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분단과 전쟁의 상처 가운데 지난 60년 동안 서로를 불신해 왔던 한반도에서 평화는 단순히 당국간의 문서 서명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가능하려면 당국 협상에서 신뢰를 쌓는 일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를 쌓아 나가는 평화구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구축 과정은 당국 협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동진 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이 한반

도 평화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과 사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주민들과 평화적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를 쌓는 일에 앞장 서 왔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김원장은 갈등 취약지역의 인도적 지원활동이 정치적 상황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지원활동 자체는 분명 지역의 갈등 문제와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의 갈등 문제는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지원의 결과는 지역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카미 티농은 유럽연합(EU)의 대북지원 경험을 소개하면서,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의 근거해 시작된 EU의 대북 지원활동이 차츰 한반도의 갈등해결에 기여하려는 구상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농은 유럽 NGO의 북한 지원 활동이 “제3의 인도주의(Third-Way Humanitarianism)”적 사례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제3의 인도주의는 개발 구호와 평화구축,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지원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입장”으로 정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NGO들은 북한의 상황에서 유럽과 유엔 기구, 정치적인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을 창출하고 단기적인 구호와 복구를 연결하는 통합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북한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희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 이날 김동진 박사의 발표자료와 카미 티농의 토론문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www.ksm.or.kr)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볼고그라드 한·러 청년학생 교류활동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볼고그라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대구대학교 해외봉사단 30여명과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 청년학생들과 현지 여러 민족의 청년학생 200여명이 참가하여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한·러 청년학생들의 문화교류활동은 태권도, 한국어, 사물놀이, 부채춤, 전통놀이 및 공예 배우기, 벽화그리기, 한글교실 수리하기, 러시아 문화체험, 농촌봉사활동, 볼가포럼 참가, 세계 2차대전 전적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볼고그라드 청년학생들이 몇 달 동안 서로 SNS 등으로 함께 의논하며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볼고그라드 기술경제대학교 기숙사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친선과 우정을 나누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환영식 및 발표회에는 볼고그라드 주정부 및 시정부에서 문화담당국장, 청년담당국장, 다민족 대표, 로스토프 한국문화원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와 감사장을 전달하였으며, 한·러 청년교류활동은 볼고그라드TV 및 언론에도 주요 뉴스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젊음과 사랑은 언제나 뜨거움과 눈물을 함께 하는 것인가 봅니다.

14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수만리 먼 길을 달려 온 봉사단이 떠날 때는 볼고그라드 기차역은 정든 친구들과 작별을 슬퍼하며 눈물이 흐르는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되었습니다.

대동강 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한 정지상의 시를 빌리자면
그래서 볼가강은 마르지 않는다고..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5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10일** 통일부 인도지원과·수출입은행 미팅 (통일부)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5일**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서울시청 다목적홀 / 서울시청 광장)
- 21~24일**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현지 방문프로그램
- 22일** 중국 북안소학교 도서관 개관식 (중국 룽정시)
- 23일** <북민협> 대북지원 실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강식
(월드비전)
- 27일** 5월 상임위원회
- 30일** <북민협> 역량강화 프로그램 2/3강 (월드비전)

6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13일** 경기도교육청 기금 협약식 (경기도교육청)
<북민협> 역량강화 프로그램 6/7강 (월드비전)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3~15일** 광주전남 어린이 평화통일캠프

- 19일** <북민협> 상임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 (프레스센터)
- 20일** <북민협> 역량강화 프로그램 8/9강 (월드비전)
- 21일** <북민협> 정책토론회 (인권위원회)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25일** 제72차 공동대표회의
- 27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27~28일** <북민협> 워크숍 (도봉 숲속마을)

7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1~14일** 대구대학교 자원봉사단 불고그라드 봉사활동
- 11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6~19일** 서울시 현 교과서 수거작업 (270개 학교)
- 22일** <북민협> 긴급 상임위원회
<북민협> 민간단체 대북지원에 관한 성명서 발표
- 22~26일** 경기도 현 교과서 수거작업 (617여개 학교)
- 23일**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대회의실)
- 주제: 한반도 평화구축과 인도적 대북지원
- 발표: 김동진(평화문화연구원 원장 / 한신대 외래교수)
- 토론: 카미 티농(프랑스 씨양스포트/릴 석사)
- 25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26일** 한국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YPI) 제1강 및 오리엔테이션
(환경재단)
- 27일**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 '평화바캉스' (서울시청)
- 29일** 경기도 안산시 한글도서 모으기 행사

8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일**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YPI) 제2강 (환경재단)
- 5일** 평안북도 안주군 군민회 수해지원 성금 전달식 (회의실)
- 6~9일** 한국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YPI) 중국 평화투어(연변일대)
- 9일** 대구대 불고그라드 봉사단 해단식 (대구대)
- 14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면담 (회의실)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7일** 한국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YPI) 6강 및 수료식(환경재단)
- 29일** 제2회 피스메이커 축구대회 (국회 운동장)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4월, 5월, 6월, 7월 성금 및 회비를 기탁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대한 북녘동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 후원자명단이 누락되었거나 이상이 있을시 연락바랍니다.

금휘식	30,000	김성철	10,000	김정순	10,000	박무영	10,000	손경환	10,000	오문택	30,000
기나영	5,000	김소영	10,000	김충연	10,000	박문식	30,000	손광우	20,000	오선연	5,000
길기판	10,000	김소희	10,000	김태균	20,000	박미란	10,000	손현현	20,000	오세호	10,000
(주)대웅파마텍	20,000	길미성	10,000	김태순	20,000	박병우	10,000	손승호	20,000	오소영	30,000
(주)디에이블커머스	100,000	길창배	10,000	김학성	10,000	박병설	30,000	손영주	10,000	오수형	10,000
(주)리치스톤	5,000	김간수	10,000	김순한	20,000	박병우	10,000	손정아	10,000	오용섭	10,000
(주)삼성파워밸브트릭	20,000	김간식	30,000	김신영	10,000	박병진	10,000	손진학	10,000	오진희	10,000
(주)세진산업개발	100,000	김강민	30,000	김신희	10,000	박병영	10,000	손준환	20,000	오형석	20,000
(주)아이디타운	10,000	김강재	10,000	김해중	5,000	박상록	50,000	송경민	50,000	오혜근	10,000
(주)여행아이거	10,000	김경태	10,000	김연수	10,000	박상일	20,000	송두현	30,000	오혜선	5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경화	5,000	김영숙	10,000	박상용	10,000	송상용	10,000	오화선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개순	5,000	김영주	10,000	박선숙	5,000	송상윤	10,000	왕정찬	5,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판식	20,000	김효호	5,000	김현우	30,000	송선도	10,000	우성호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판정	10,000	김목영	10,000	박선자	20,000	송승호	20,000	우종호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우배	20,000	김호일	20,000	박성기	40,000	송은숙	10,000	원동숙	1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용관	100,000	김홍석	10,000	박성은	30,000	송재영	10,000	원종남	10,000
(주)한국인터넷	30,000	김용덕	30,000	김홍진	10,000	박성찬	10,000	송재천	10,000	원우진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용현	10,000	김홍희	10,000	박소희	10,000	송재현	10,000	유남길	20,000
(주)한국인터넷	80,000	김구철	10,000	김효은	20,000	박순	10,000	송승배	10,000	유명희	5,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구현	10,000	김호정	10,000	박순성	10,000	송정호	20,000	유세복	2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구영	20,000	김호곤	20,000	박아스더	50,000	송지섭	10,000	유성식	10,000
(주)한국인터넷	30,000	김우경	20,000	김희년	20,000	박영근	20,000	송재규	10,000	유승주	5,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금순	40,000	김우전	10,000	김희선	20,000	송재철	10,000	유시민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금준	10,000	김용국	10,000	박영권	20,000	신구호	10,000	유원희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금평	25,000	김원영	10,000	김희순	10,000	신기호	10,000	유진숙	5,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금희	10,000	김원정	10,000	박원규	10,000	신동석	10,000	유준숙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은	50,000	김은경	10,000	노병만	20,000	박의용	10,000	유은미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판	10,000	김은경	3,000	나선경	100,000	박이현	20,000	유재진	10,000
(주)한국인터넷	5,000	김기준	20,000	김은경	3,000	나원연	30,000	박인숙	60,000	유진석	2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철	5,000	김은숙	20,000	나원연	20,000	박인순	10,000	유진상	8,5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20,000	김은혜	10,000	박재록	10,000	나종문	20,000	유진상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운	50,000	나정현	10,000	유피에스시스템(주)	3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원	10,000	나정희	10,000	유희준	2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자	10,000	나진석	10,000	윤경운	5,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종록	10,000	나정수	20,000	윤경복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종우	20,000	나정현	5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지연	20,000	나정희	50,000	윤경희	2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지웅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진희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철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2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0,000	박정현	10,000	나정희	10,000	윤경희	10,000
(주)한국인터넷	10,000	김기정	5,000	김은경	1						

이명수	10,000	이필원	10,000	정성호	20,000	최승호	10,000	방철호	20,000	안현성	5,000	황금철	20,000	남영희	5,000	오이경	10,000	최상범	20,000	고정수	20,000	김선미	5,000	김현	30,000	박영철	10,000		
이목희	10,000	이향	10,000	정수진	10,000	최우정	10,000	선봉규	5,000	양경진	5,000	황병규	10,000	노승일	10,000	오후정	10,000	최숙희	30,000	고정환	20,000	김선배	10,000	김현삼	20,000	박율권	20,000		
이무철	20,000	이현석	10,000	정수현	5,000	최우복	30,000	송형구	10,000	양재원	10,000	황재규	5,000	노래원	1,000	오후정	20,000	고청훈	30,000	김선희	10,000	김현성	10,000	박원규	10,000				
이미래	5,000	이현숙	5,000	정수희	5,000	최운식	5,000	최근근	10,000	이한결	10,000	이현글	5,000	황지중	5,000	노래원	20,000	최대희	10,000	고희갑	10,000	김선희	10,000	김현우	30,000	박유증	10,000		
이범도	10,000	이현숙	100,000	정수희	5,000	최운식	30,000	최자진	10,000	이현슬	5,000	오현광	5,000	황현택	20,000	리병금	20,000	최대원	10,000	공은영	10,000	김성봉	40,000	김현중	5,000	박의용	10,000		
이병동	10,000	이현정	10,000	정승혜	20,000	최자천	100,000	정극철	10,000	우옹호	30,000	온강민	5,000	황현택	20,000	류덕용	20,000	유근춘	100,000	김성수	10,000	김성봉	10,000	김혜중	10,000	박아현	20,000		
이병재	10,000	이혜경	10,000	정연실(송경평)	30,000	최장숙	10,000	최장애	20,000	조두형	10,000	온강민	5,000	황현택	20,000	류승현	10,000	유승희	10,000	김선희	10,000	김성숙	10,000	김호일	20,000	박인숙	60,000		
이상복	10,000	이혜린	5,000	정연웅	10,000	최진애	20,000	최진숙	10,000	우광택	50,000	강병태	10,000	황현택	20,000	류연석	10,000	유연미	10,000	곽연실	10,000	곽재원	10,000	김선희	10,000	김준석	10,000	박재목	10,000
이상열	1,000	이혜율	10,000	정연정	10,000	최진숙	10,000	최진숙	10,000	우광택	50,000	강병태	10,000	황현택	20,000	류연준	10,000	유하경	20,000	곽연실	10,000	곽재원	10,000	김선희	10,000	김종근	50,000		
이상재	10,000	이혜율	30,000	정연준	20,000	최창윤	10,000	최창윤	10,000	원형복	10,000	강삼웅	10,000	황현택	20,000	문경숙	40,000	윤기통	10,000	구국모	10,000	김선미	5,000	김현	30,000	박정란	10,000		
이상학	10,000	이혜원	10,000	정병철	10,000	최창영	30,000	우방용	5,000	유미경	10,000	강은항	30,000	황현택	20,000	문민	5,000	윤성진	10,000	구수영	10,000	김소영	10,000	김효은	20,000	박정란	10,000		
이상호	30,000	이혜정	5,000	정병희	10,000	최자타	5,000	우방용	5,000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	(유)병건설	10,000	유재욱	10,000	황현택	20,000	문성권	30,000	윤여두	100,000	구영주	10,000	김소영	10,000	김효은	10,000	박정란	10,000	
이상훈	10,000	이홍우	20,000	정육식	10,000	최필선	20,000	유재우	10,000	고광현	50,000	고광현	50,000	황현택	20,000	문성우	20,000	윤여진	50,000	김수현	10,000	김선희	20,000	김희년	20,000	박종운	20,000		
이석웅	10,000	이홍복	20,000	정용민	5,000	최현주	20,000	유재우	10,000	고광현	50,000	고광현	50,000	황현택	20,000	문진	10,000	윤정희	10,000	김선희	10,000	김선희	10,000	김희년	5,000	박주현	5,000		
이선	10,000	이숙희	10,000	정원성	10,000	최희숙	10,000	유재우	10,000	고기운	3,000	고기운	3,000	황현택	20,000	박경호	10,000	운지인	10,000	권보미	10,000	김선희	10,000	나방만	20,000	박자웅	10,000		
이선규	10,000	이희중	5,000	정재민	10,000	최희은	10,000	유재우	10,000	고우민	50,000	고우민	50,000	황현택	20,000	곽경란	10,000	운지인	10,000	권보미	10,000	김선희	10,000	나방만	20,000	박자웅	10,000		
이선호	5,000	이희택	50,000	정재환	30,000	최하환	5,000	유재우	10,000	이경래	10,000	고광현	50,000	황현택	20,000	문경란	20,000	윤자정	10,000	권보미	10,000	김선희	10,000	김희년	20,000	박종운	20,000		
이성민	10,000	임경택	20,000	정정태	10,000	최승창	20,000	이승창	20,000	이경래	10,000	고광현	50,000	황현택	20,000	박경운	10,000	윤혜정	30,000	권오근	10,000	김선희	10,000	김원연	20,000	박현철	10,000		
이성수	5,000	임간재	10,000	정자영	20,000	최정현	5,000	임간재	10,000	이구문	10,000	고광현	50,000	황현택	20,000	박경운	10,000	허경기	30,000	김운영	10,000	김선희	10,000	김운영	5,000	박정운	30,000		
이성주	10,000	임광호	30,000	정지은	10,000	한경아	3,000	임광호	10,000	이기운	10,000	이기운	10,000	황현택	20,000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2,000,000	원정희	10,000	김운영	10,000	김운영	10,000	김운영	10,000	김운영	10,000	김운영	10,000
이성철	10,000	임금숙	10,000	정진영	10,000	한나영	5,000	임금숙	5,000	이기운	5,000	이기운	5,000	황현택	20,000	이기운	5,000	이병진	10,000	김하늘	2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이성호	5,000	임길설	10,000	정진영	10,000	한나영	30,000	임길설	10,000	이명숙	5,000	이명숙	5,000	황현택	20,000	이명숙	5,000	이명숙	5,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이세준	20,000	임동권	10,000	정성현	5,000	한다현	10,000	임동권	10,000	고영삼	10,000	고영삼	10,000	황현택	20,000	이명숙	5,000	이명숙	5,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이수구	100,000	임동선	10,000	정해문	10,000	한다현	10,000	임동선	10,000	고영삼	10,000	고영삼	10,000	황현택	20,000	이명숙	5,000	이명숙	5,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이수명	5,000	임문희	10,000	정현우	10,000	한다현	10,000	임문희	10,000	고영삼	10,000	고영삼	10,000	황현택	20,000	이명숙	5,000	이명숙	5,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이숙희	5,000	임미자	5,000	정희경	10,000	한동학	10,000	임미자	10,000	김경년	10,000	김경년	10,000	황현택	20,000	이기운	5,000	이기운	5,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이승곤	20,000	임병철	10,000	정희경	10,000	한동학	10,000	임병철	10,000	김경년	10,000	김경년	10,000	황현택	20,000	이기운	5,000	이기운	5,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이승영	20,000	임세진	10,000	조길영	10,000	한동학	10,000	임세진	10,000	김경년	10,000	김경년	10,000	황현택	20,000	이기운	5,000	이기운	5,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이승우	20,000	임옥현	10,000	조내연	20,000	한서정	10,000	임옥현	10,000	김경년	10,000	김경년	10,000	황현택	20,000	이기운	5,000	이기운	5,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김기판	10,000
이승환	10,000	임원민	20,000	조연화	10,000	한서정	10,000	임원민	10,000	김경년																			

신수억	10,000	윤시원	10,000	이재원	10,000	장환빈	10,000	조현민	10,000	홍기호	10,000	김진관	20,000	정이름	5,000	김영득	10,000	백정은	10,000	이현재	10,000	감복조	10,000	김대성	20,000	김정순	10,000
신용철	10,000	윤신원	20,000	이재학	30,000	전미란	5,000	조해기	5,000	홍란희	5,000	김진태	10,000	김영재	10,000	변은경	10,000	이현주	10,000	강복현	10,000	김대명	5,000	김정희	10,000	김종갑	20,000
신은결	10,000	윤영복	5,000	이재학	50,000	전미란	5,000	조현	5,000	홍란희	5,000	김창영	10,000	김유체	5,000	변은경	10,000	임원빈	5,000	임원빈	10,000	강남준	10,000	김대영	5,000	김종갑	10,000
신진식	10,000	윤영근	10,000	이재희	5,000	전병은	10,000	조현영	10,000	홍면기	10,000	김태환	5,000	정홍귀	10,000	김용민	5,000	5,000,000	5,000,000	임지윤	20,000	강동완	20,000	김덕희	10,000	김종구	10,000
신종대	10,000	윤재희	10,000	이정세	10,000	전병태	10,000	조현호	20,000	홍미옥	30,000	김현제	10,000	조성탁	20,000	김용재	10,000	서연우	10,000	임희규	2,000,000	강동완	20,000	김덕희	10,000	김종구	10,000
신준석	10,000	윤증석	10,000	이정수	10,000	전성관	10,000	조현준	20,000	홍상운	5,000	김형순	20,000	조승훈	5,000	김용화	5,000	서희순	10,000	임형주	10,000	강병희	10,000	김도규	20,000	김종문	20,000
신진현	10,000	윤증원	10,000	이정숙	10,000	전영일	10,000	주관수	10,000	홍석	10,000	류희웅	10,000	조용원	50,000	김우종	20,000	선정아	30,000	장범식	10,000	강선미	5,000	김종문	20,000	김종문	20,000
신종수	20,000	윤주인	30,000	이정식	50,000	전영일	20,000	주로미	5,000	홍석조	500,000	문용식	5,000	조우영	10,000	김월섭	20,000	설인혜	50,000	전범권	10,000	강선미	5,000	김종분	500,000	김종준	10,000
심경란	50,000	윤지열	10,000	이정엽	10,000	전용운	10,000	주우현	5,000	홍석조	500,000	문태환	5,000	조주원	5,000	김윤기	10,000	성현주	30,000	전종수	60,000	강성부	10,000	김동분	500,000	김종분	10,000
심밀선	10,000	윤지훈	10,000	이정주	10,000	전일순	10,000	주재열	10,000	홍성건	10,000	박구순	10,000	조자현	5,000	김윤미	15,000	소주현	100,000	정경수	10,000	김승원	20,000	김동천	10,000	김종연	50,000
신정보	100,000	윤정빈	10,000	이정희	5,000	전정수	10,000	주현기	10,000	홍수희	20,000	박민승	10,000	조승순	5,000	김이향	10,000	송명우	20,000	정금나	10,000	강승희	10,000	김동환	30,000	김주완	10,000
심해수	50,000	윤정섭	10,000	이중명	10,000	전현희	10,000	주혜영	10,000	홍운정	10,000	박미라	5,000	조태석	5,000	김자람	10,000	송용석	10,000	정동혁	10,000	강신	10,000	김만전	5,000	김종갑	20,000
심현주	10,000	이강기	50,000	이중민	10,000	전종수	20,000	주희숙	5,000	홍준석	10,000	박미숙	10,000	채승화	10,000	김정미	10,000	김정미	10,000	김인법	10,000	김동근	20,000	김종문	20,000	김종문	20,000
심현희	10,000	이강희	5,000	이중석	30,000	전재남	10,000	지선경	5,000	홍진표	30,000	박연구	10,000	최경미	10,000	김정영	10,000	신대현	5,000	정성경	20,000	강정미	5,000	김맹기	10,000	김준석	20,000
이옥련	10,000	이경미	5,000	이중안	20,000	전한이	10,000	지준호	10,000	홍청영	10,000	박용수	5,000	최재현	10,000	김정은	10,000	신상복	10,000	정경수	60,000	강성부	10,000	김동분	500,000	김종분	10,000
안명화	20,000	이경재	10,000	이중주	5,000	전해린	35,000	전상호	10,000	홍현선	30,000	박윤천	10,000	최기천	5,000	김정은	20,000	신순남	10,000	정금나	30,000	강창구	10,000	김미총	10,000	김중수	10,000
안상화	5,000	이경희	10,000	이중호	5,000	전후	5,000	차현애	10,000	화신농간	20,000	박윤선	10,000	최우성	20,000	김정현	20,000	정경우	20,000	강창구	10,000	김기준	20,000	김미총	10,000	김중수	10,000
안세봉	20,000	이국립	5,000	이주철	50,000	정경우	3,000	차량철	20,000	화계연	100,000	박윤훈	10,000	최우성	10,000	김태연	10,000	박중렬	20,000	정정옥	30,000	강창구	10,000	김기준	20,000	김중수	10,000
안의천	30,000	이규설	5,000	이준동	10,000	정경훈	10,000	채병철	10,000	화대철	10,000	박인곤	10,000	최인엽	10,000	김정환	10,000	김제호	10,000	정지혜	30,000	강필희	10,000	김자숙	10,000	김종화	20,000
안영숙	5,000	이근덕	30,000	이준희	10,000	정계현	10,000	채보미	5,000	황명필	10,000	박중호	20,000	최재현	10,000	김종원	10,000	김종원	10,000	정지혜	30,000	강필희	10,000	김자숙	10,000	김종화	20,000
안정근	500,000	이근태	10,000	이지현	20,000	정근	10,000	황현주	30,000	황성주	10,000	박중호	20,000	최재현	10,000	김종원	10,000	김종원	10,000	정지혜	60,000	강하경	10,000	김자숙	10,000	김종화	20,000
안정덕	5,000	이근행	10,000	이지은	10,000	정근영	10,000	최병희	20,000	황재성	10,000	박종환	5,000	최종환	10,000	김진경	10,000	김진경	10,000	정현철	10,000	강희주	5,000	김병수	10,000	김진백	30,000
안정식	10,000	이대희	10,000	이재린	10,000	정병진	10,000	최세나	10,000	강대군	10,000	성원호	5,000	한상만	10,000	김진영	20,000	이재정	10,000	제해성	10,000	고봉균	10,000	김상수	10,000	김학경	20,000
안정수	10,000	이동민	10,000	이천환	30,000	정성모	10,000	최세문	20,000	공용택	50,000	손상국	10,000	한상철	10,000	김진현	5,000	안호진	30,000	제해준	10,000	고석주	10,000	김상수	10,000	김학경	20,000
양미나	20,000	이동석	20,000	이정희	50,000	정성만	10,000	최수진	5,000	김선희	50,000	송민규	5,000	한기문	10,000	김태연	10,000	양어거스틴	10,000	조성희	10,000	조성희	10,000	조성희	10,000	김기준	20,000
양순화	10,000	이동숙	10,000	이중무	5,000	정성호	20,000	최수우	10,000	김제기	10,000	송인규	10,000	한기문	10,000	김태연	50,000	양영아	20,000	조은희	20,000	고기철	10,000	김상수	20,000	김기준	20,000
양우성	10,000	이동수	10,000	이태주	10,000	정수근	10,000	최승호	10,000	김현미	50,000	신민수	5,000	한민석	5,000	김태평	20,000	양영식	20,000	고정환	15,000	고동철	15,000	김기준	20,000	김기준	20,000
양윤정	2,000	이동영	10,000	이필원	10,000	정수진	10,000	최승호	10,000	나선경	5,000	신별선	10,000	나선경	5,000	김현정	10,000	양호정	5,000	조형아	10,000	고정환	15,000	김기준	20,000	김기준	20,000
양연보	20,000	이동원	10,000	이향기	10,000	정수현	5,000	최병희	20,000	방철호	20,000	안귀녀	10,000	방철호	20,000	김학노	10,000	양호정	5,000	조형아	10,000	고정환	15,000	김기준	20,000	김기준	20,000
양재복	100,000	이영수	10,000	이현숙	5,000	정수희	5,000	최명희	10,000	신봉규	5,000	안현성	5,000	한기문	10,000	김진영	20,000	양경진	10,000	제해준	10,000	고석주	10,000	김상수	10,000	김학경	20,000
양진선	5,000	이목희	10,000	이현숙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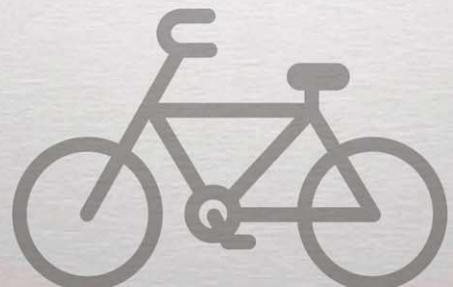
		7월																					
민순옥	20,000	손영주	10,000	원종남	10,000	이승우	20,000	임병철	10,000	조만용	5,000	한두희	10,000	김공련	5,000	이양재	10,000	김나눔	10,000	박재규	100,000	이유얼	10,000
민항석	10,000	손정아	10,000	원우진	10,000	이승환	10,000	임세진	10,000	조매경	5,000	한상균	5,000	김구	10,000	이연주	10,000	김덕훈	20,000	박재완	10,000	이일양	20,000
민현주	10,000	손진백	10,000	유근호	30,000	이연하	5,000	임옥현	10,000	조민지	20,000	한서정	10,000	김구진	5,000	이영내	10,000	김만호	20,000	박정숙	30,000	이일영	50,000
박건	10,000	손호	20,000	유남길	20,000	이업	10,000	임인기	10,000	조석희	10,000	한승엽	10,000	김근섭	20,000	이영숙	5,000	김미순	10,000	김민제	30,000	박정식	10,000
박경국	5,000	송경민	50,000	유명희	5,000	이업주	20,000	이영철	10,000	조선아	10,000	한영숙	10,000	김근수	10,000	이영환	5,000	김민희	10,000	김민희	20,000	이정미	10,000
박귀현	10,000	송동현	30,000	유내복	20,000	이영호	10,000	임장원	5,000	조선명	10,000	한인구	10,000	김기문	5,000	이영희	5,000	김민희	10,000	박중균	5,000	이정철	20,000
박기호	20,000	송상윤	10,000	유성식	10,000	이영호	50,000	임재민	10,000	조선명	10,000	한인숙	5,000	김기통	10,000	이용범	10,000	김부도	20,000	박중원	20,000	이정철	10,000
박남웅	50,000	송성도	10,000	유승주	5,000	이영호	20,000	임정애	10,000	조성호	20,000	한정화	10,000	김동령	20,000	이율연	10,000	김상근	50,000	박중원	20,000	이제현	100,000
박동우	5,000	송운학	20,000	유시민	10,000	이숙준	10,000	임준우	20,000	조승희	10,000	한진우	5,000	김동우	50,000	이중분	10,000	김선숙	10,000	박진우	20,000	이중섭	10,000
박동호	50,000	송은숙	10,000	유원희	10,000	이율근	10,000	임현직	10,000	조성현	10,000	한진우	5,000	김동우	50,000	이중분	10,000	김선숙	10,000	박진우	20,000	이중학	10,000
박무영	10,000	송은지	10,000	유윤숙	5,000	이용선	30,000	장길수	5,000	조영석	10,000	한천수	20,000	김두환	10,000	이중민	10,000	김선숙	30,000	박정준	30,000	이지운	10,000
박문식	30,000	송재영	10,000	유윤미	10,000	이봉선	20,000	정민환	30,000	조영식	10,000	한천연	50,000	김명관	10,000	이중성	10,000	김선숙	20,000	박정준	20,000	이재현	10,000
박미란	10,000	송재현	10,000	유재진	10,000	이봉성	10,000	정보현	20,000	조용진	10,000	한천현	5,000	김문혁	10,000	이주형	5,000	김성수	20,000	박정준	20,000	이치수	30,000
박병무	10,000	송재현	10,000	유종석	20,000	이봉찬	10,000	정사의	10,000	조운	5,000	한영준	20,000	김상택	5,000	이지옹	5,000	김성우	30,000	박정준	20,000	이학수	20,000
박병우	10,000	송재현	10,000	유자민	8,500	이우영	20,000	정선영	15,000	조윤근	10,000	한명운	5,000	김상태	10,000	이진탁	10,000	김승진	20,000	박정준	20,000	이현재	10,000
박병진	10,000	송정배	10,000	유진상	10,000	이운숙	10,000	정순천	10,000	조운원	30,000	허현종	10,000	김순우	10,000	이현택	10,000	김연우	20,000	박정준	20,000	변경경	10,000
박복영	10,000	송정호	20,000	유피에스시스템(주)	10,000	이운학	10,000	정영준	10,000	조재호	10,000	허정	10,000	김명규	20,000	이현주	10,000	김복조	10,000	김도규	20,000	김기원	10,000
박장우	50,000	송지섭	10,000	윤광운	30,000	이원민	5,000	정용성	10,000	조정준	10,000	허정운	5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분	500,000	김기원	10,000
박장일	20,000	송태규	10,000	윤광운	5,000	이원욱	5,000	정용훈	10,000	조창식	10,000	현대명판매대리점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석양	10,000	신경서	10,000	윤두령	10,000	이윤상	5,000	정원석	10,000	조태현	5,000	현윤식	1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선숙	5,000	신경은	10,000	윤명현	10,000	이윤경	10,000	정운진	5,000	조태민	10,000	현윤식	1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선오	30,000	신기호	10,000	윤성진	10,000	이인덕	10,000	정재영	10,000	조현	5,000	현윤애	1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선자	20,000	신동석	10,000	윤성진	50,000	이인숙	10,000	정장희	10,000	조현영	10,000	현윤애	1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성기	40,000	신동해	5,000	윤승우	50,000	이인숙	10,000	정장희	10,000	조현영	10,000	현윤애	1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성은	30,000	신상분	10,000	윤승우	10,000	이사원	10,000	정진경	10,000	조현호	20,000	현윤애	1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성천	10,000	신수익	10,000	윤산원	20,000	이일영	50,000	정수현	30,000	조형준	20,000	홍구표	3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소희	10,000	신용철	10,000	윤성철	5,000	이자원	10,000	정한빈	10,000	조홍별	20,000	홍기호	1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순	10,000	신은운	10,000	윤용근	10,000	이자하	30,000	전국재	10,000	주관수	10,000	총관희	5,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순성	10,000	신정식	10,000	윤내희	10,000	이자학	50,000	전미란	5,000	주로미	5,000	총관희	5,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에스터	50,000	신종태	10,000	윤종식	10,000	이자희	5,000	전병은	10,000	주례희	10,000	현중경	4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영근	20,000	신종숙	10,000	윤종원	10,000	이정민	10,000	전병태	10,000	주우현	5,000	현중경	3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영철	10,000	신종현	10,000	윤주인	30,000	이정체	10,000	전성관	10,000	주자열	10,000	홍상운	5,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용권	20,000	신통수	10,000	윤주열	10,000	이정수	10,000	전영일	20,000	주장빈	50,000	홍기호	1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원규	10,000	신증간	50,000	윤자현	10,000	이정숙	10,000	전영운	10,000	주현기	10,000	홍성건	1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원승	10,000	심말선	10,000	윤현진	10,000	이정식	50,000	전원순	10,000	주혜경	10,000	홍운정	20,000	김운철	10,000	이현주	10,000	김기원	20,000	김동진	10,000	김동진	10,000
박원우	10,000	심해우	50,000	윤현정	10,000	이정주	10,000	전원순	10,000	주희우	5,000	홍제표	10,000	김운철	100,								

김의곤	10,000	류재호	5,000	변진석	10,000	염주일	20,000	이상복	10,000	이혜민	5,000	정영철	10,000	최정애	20,000	이한결	10,000	오현광	5,000	강대현	20,000	류영준	10,000	윤자영	10,000	한국화학연구원	
김인선	10,000	류정숙	10,000	봉미란	10,000	염구현	10,000	이상재	10,000	이혜숙	10,000	정욱식	10,000	최진원	20,000	정극철	10,000	온정희	5,000	강병태	10,000	문경숙	40,000	윤정희	10,000	한덕섭	60,000
김일성	100,000	류주현	5,000	서기원	30,000	염동현	10,000	이상학	10,000	이혜원	10,000	정은미	5,000	최진원	10,000	조두형	10,000	원령복	10,000	강성우	30,000	문성권	30,000	윤지인	100,000	한동희	10,000
김일환	10,000	류현선	10,000	서동화	20,000	염철	50,000	이상호	30,000	이혜정	5,000	정인성	10,000	최철영	30,000	최준혁	10000	우미경	10,000	김은향	30,000	문주성	10,000	윤지현	20,000	한예리	10,000
김장연	10,000	류희자	20,000	서명호	20,000	오계환	10,000	오만순	30,000	이상훈	10,000	이홍준	20,000	정인준	50,000	최우경	10,000	유방용	5,000	고평현	50,000	문진	10,000	윤혜정	30,000	한원택	50,000
김자광	5,000	마경락	10,000	서순희	10,000	오분택	30,000	이선	10,000	이효식	10000	정재욱	20,000	최희은	10,000	유재우	10,000	고기은	3,000	박경호	10,000	이광훈	30,000	한인숙	10,000	한지섭	10,000
김재범	10,000	마윤종	20,000	서옥주	10,000	오선연	5000	이선규	10,000	이희원	5,000	정재한	30,000	최필선	20,000	최한주	20,000	유재호	10,000	고우민	50,000	박경호	30,000	이규	10,000	한창규	50,000
김재범	20,000	목주승	5,000	서정숙	10,000	오수연	30,000	이선호	5,000	이희증	5,000	정전태	10,000	최희은	10,000	최희은	10,000	유재우	10,000	곽경란	10,000	박경호	20,000	이남희	20,000	한창규	50,000
김재홍	10,000	문경수	5,000	서희정	10000	오수형	10,000	이상민	10,000	이희택	50,000	정지영	20,000	최진원	20,000	최희은	10,000	유재우	10,000	박경호	30,000	이병진	10,000	이성준	20,000	허경기	30,000
김정미	10,000	문성권	10,000	서자통	10,000	오준희	10,000	이성수	5,000	임강택	20,000	정지운	10,000	최진원	20,000	최진원	20,000	유재우	10,000	고우민	50,000	박경호	30,000	이규	10,000	한창규	50,000
김정미	10,000	문수정	50,000	서지훈	10,000	오현석	20,000	이건재	10,000	정진영	10,000	정진영	10,000	최진원	20,000	한강아	3,000	유재우	10,000	곽경란	10,000	박경호	30,000	이민성	5,000	한중택	20,000
김정수	20,000	문정숙	10000	서천희	10,000	오해근	10,000	이상철	10,000	임광호	30,000	정진영	10,000	최철영	30,000	한강아	3,000	유재우	10,000	고우민	50,000	박경호	30,000	이리나	5,000	한창규	50,000
김정수	10,000	민경자	1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5000	이선호	5,000	임금숙	10,000	정진광	10,000	최철영	30,000	한길석	20,000	이기훈	5,000	권명현	10,000	박경호	30,000	이선장	10,000	허인웅	10,000
김정수	10,000	민경자	2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20,000	임길상	10,000	정한성	5,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동혁	10,000	김경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정희	10,000	민순옥	2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종갑	10,000	민광석	1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종갑	20,000	민한주	1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종구	10,000	박건	1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종국	10,000	박경국	5,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종준	10,000	박귀현	1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종현	20,000	박기호	2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주영	50,000	박경용	5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주원	10,000	박동우	5,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주태	5,000	박동호	5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주학	10,000	박명기	3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준석	20,000	박무영	1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준영	10,000	박문식	3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준현	200,000	박미란	1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중수	10,000	박미화	1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중호	30,000	박방무	10,000	서예선	10,000	오희선	20,000	이세준	100,000	임동권	10,000	정해문	10,000	최철영	20,000	한나영	5,000	강병수	10,000	김경란	20,000	박성림	10,000	이수구	10,000	한종스님	10,000
김지선	20,000	박병우	10,000	서예선	10																						

자전거로 민통선을 달린다!



자전거 투어



매월 넷째주 일요일 (월1회)

참가인원 | 300명 이내 참가비용 | 1인당 10,000원 (파주 특산 농산물 제공)

신청기간 | 매월 첫째주 ~ 둘째주 접수 및 문의 | www.gto.or.kr / 031-952-7805